



“오토 캠프 지금 신청하세요”

자동차업체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‘오토캠프’와 ‘무상점검 서비스’ 등 다양한 여름철 이벤트를 연다.

기아차는 오는 28일부터 8월7일까지 강원도 고성군 봉수대 해수욕장에서 오토캠프존을 운영한다.

기아차 오토캠프는 기아차 보유 고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, 오는 20일까지 기아차 홈페이지(www.kia.co.kr)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.

기아차는 200가족 규모의 오토캠프존을 5차례에 걸쳐 운영할 예정이며, 총 1천여 가족에게 오토캠프 이용 쿠폰을 제공한다.

당첨 가족들은 캠프존 내에 주차 및 텐트를 설치할 수 있으며 화장실과 식수대, 비치파라솔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. 또 각종 해양레포츠도 30%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 가능하다.

이와 함께 기아차는 오토캠프존에 무상 A/S센터를 운영해 고객 차량의 경정비와 무상점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. 캠프 기간 ‘로체 이노베이션’의 시승 행사도 열린다.

현대차도 고객 2천여명을 초청해 여름캠프를 연다. 오는 24일까지 현대차 보유 고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, 오는 26일부터 8월7일까지 총 6차에 걸쳐 캠프를 진행한다.

올해로 8회째를 맞는 여름캠프는 성우리조트에서 2박3일간 숙박을 하며 ‘볼로켓 과학 강좌’, ‘DSLR 카메라 강좌’, ‘농촌 체험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.

볼보자동차코리아는 오는 14일부터 한 달간 무상점검 캠페인을 실시한다. 이번 무상점검은 전국 17개 볼보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진행되며, 에어컨 등 21개 항목에 대한 점검을 받을 수 있다.

/최경호기자 choice@kwangju.co.kr

기아차 고객과 함께 여름나기 이벤트

봉수대 해수욕장에 오토캠프존 운영

현대차도 고객 2천여명 초청 여름캠프

차 업체 “여름휴가 고객 잡아라”

자동차업체가 경쟁적으로 여름철 판촉활동을 벌이고 있다. 고유가 여파 등으로 최근 내수 판매가 감소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대대적인 ‘여름 마케팅’에 나선 것이다.

특히 현대·기아차 등 국산차 업체들은 유류비 지원은 물론, 각종 할인 프로그램까지 내걸고 ‘여름 고객’ 잡기에 들어갔다. 수입차 업체들도 휴가철 차량구매 고객에 대한 세금 지원 등으로 ‘맞붙’을 놓고 있다.

◇유류비 지원에 각종 할인까지=국산차 업체들의 가장 큰 전략은 유류비 지원이다.

11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는 이달에 ‘로체’와 ‘스포티지’, ‘쏘렌토’, ‘모하비’, ‘카렌스’ 등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유류비를 20만~150만원 지원한다. 또 고객들은 유류비 지원 대신 3~6%의 저금리로 1년에서 최대 4년까지 할부해택을 받을 수도 있다.

여기에 5년 이상 기아차를 보유한 고객이 새 차를 살 경우 20만~30만원이 추가 할인된다. ‘로체 이노베이션’ 구매 고객에게는 7년(15만km)까지 무상보증기간이 적용된다.

현대차는 최근 ‘베라크루즈’, ‘투싼’, ‘그랜드스타렉스’ 등 경유차에 대해 100만원 할인조건을 달았다. 올해 경유값 급등으로 인한 경유차의 판매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서다.

또 ‘쏘나타’, ‘클릭’, ‘베르나’ 구매고객에게는 20만원의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.

GM대우도 ‘윈스톰’에 대한 유류비 지원폭을 지난달 110만원에서 이달에는 최대 190만원까지 늘렸다. 또 ‘마티즈’ (40만원), ‘라세티’ (85만원), ‘토스카’ (85만원) 등도 유류비를 지원한다.

쌍용차는 ‘렉스턴II’ 등 SUV 전 차종에 대해 200만~400만원의 파격적인 유류비 지원에 나선다. 이는 지난달(200만원)에 비해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, SUV의 판매를 늘리

기 위한 ‘교육지책’으로 풀이된다.

차종별로는 ‘렉스턴II’의 할인폭이 가장 크다. 지난 1~2월 생산된 ‘렉스턴II’를 구입할 경우 유류비 400만원이 지원된다. ‘뉴카이런’, ‘액티언’ 등도 생산 시기에 따라 각각 250만~350만원이 할인된다.

르노삼성도 예외가 아니다. ‘SM7’은 현금 지원은 없지만 59만원 상당의 전자동 선루프를 무상으로 장착해준다. ‘QM5’는 지난달 유류비 50만원을 지원했지만 이달에는 85만원대 선루프를 무상으로 달아준다.

르노삼성은 또 기존 고객이 르노삼성차를 다시 구매할 경우 ‘SM7’은 30만원, ‘SM5’와 ‘QM5’는 20만원, ‘SM3’는 10만원을 제공한다.

◇수입차 업체도 ‘여름 마케팅’ 가세=수입차업체도 차값 할인은 물론, 여행상품권 증정 등 대대적인 ‘여름 마케팅’에 나섰다.

인피니티는 스포츠세단인 ‘G35’를 비롯, ‘M35’, ‘M45’ 등의 구매 고객들을 대상으로 4.2%의 저금리 금융 프로그램과 함께 여행상품권을 제공한다. ‘EX35’와 ‘G35’ 쿠폰 구매자도 여행상품권을 제공받는다.

또 기존 고객들을 위해서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마련하는 한편, 점검 고객들을 대상으로 여행용 가방 등을 증정한다.

유류비 지원·할인등 바캉스 마케팅 나서

수입차 업체도 여행상품권 증정 등 가세

크라이슬러코리아는 7월 한 달간 차량 등록비 전액 지원과 무이자 할부 행사를 펼친다. ‘300C’ 3.5 및 3.0 디젤 모델을 구입하는 고객은 취득·등록세, 1년치 보험료가 모두 포함된 차량 등록비를 지원받는다.

또 닷지 ‘캘리버’의 구매 고객은 24개월 무이자 할부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고, 닷지 ‘다코타’는 25%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다.

/최경호기자 choice@kwangju.co.kr



〈기아차 ‘로체 이노베이션’〉



〈닷지 ‘캘리버’〉

장기-계

최상 리베의 무릉도원

무안++장사(장가계) 직항

매주 일·목 7회 편성 ₩ 649,000-

7/27, 7/31, 8/3, 8/7, 8/10, 8/14, 8/17 출발

폭넓은 고품격! 가격은 다운!

GOLF 4명부터 출발가 ₩ 899,000-

문의: 02-226-6070